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인식정형에 대한 분석평가와 그 응용에서 나서는 문제

양 하 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정밀한 수값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략적인 크기를 요구할 때도 있다. 대략적인 수량과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사전적의미와 다른 사용의미에 대한 인식정형을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장악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를 선택해주는것은 언어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언어학적문제로 나선다.

단어의미의 본질과 그 갈래 및 의미발전의 요인 등에 대하여서는 이미 어휘론, 의미론 등 언어학의 여러 부문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많이 연구하여왔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크기를 표시하는 수사와 무게, 길이 및 시간과 같은 단위뒤에 붙어서 대략적이고도 평균적인 수량과 관계되는 단어들인 단어 《쯤》과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있는가를 물음을 제기하여 응답서를 받는 방법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물음과 응답의 방법으로 조사자료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평가를 내리며 거기서 얻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1.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평가

대략적인 크기를 표시하는 수사와 무게, 길이 및 시간과 같은 단위뒤에 붙어서 대략적이고도 평균적인 수량과 관계되는 단어들인 《쯤》이나 《가량》과 결합하여 물음으로 제기하였을 때 해당한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우점이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실례를 통하여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명백한 표상을 가지도록 한다는데 있다.

사전적의미는 무한하게 실현되는 그 모든 정황과 조건들에 다 해당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전적의미는 언어생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조건들에 구애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쯤》의 사전적의미 그자체가 역시 일반적인 의미이므로 구체적인 수값과 련관된 실례를 줌으로써 그 단어 《쯤》의 사용의미에 대한 대략적인 표상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단어 《쯤》의 일반적의미를 알려주는것에 아울러 실례로 《10》이라는 수사와 단위 《kg》을 붙여서 거기에 단어 《쯤》을 붙이면 《10kg쯤》이 된다. 이 《10kg쯤》을 물음으로 주면 무게에서 《10kg》이라는 정밀한 값을 한가지 찍어준것으로 되기때문에 응답자는 불완전명사 《쯤》의 의미를 《10kg》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응답자들은 단어 《쫘》의 뜻을 《9~11, 8~12, 9.5~10.5》 등으로 각이하게 답을 내지만 공통점은 다같이 10kg의 안팎, 그 앞뒤, 그 전후로 인식하고있는것이다.

또한 《9~10, 9.5~10, 8~10》 등으로 답을 낸것은 단어 《쫘》의 뜻을 다같이 10kg의 아래, 그 미만으로 리해하고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에는 《10~11, 10~12, 10~10.5》 등도 있는데 이것은 《10kg쫘》을 다같이 10kg 이상으로 본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응답서를 받아보면 사람마다 단어 《쫘》을 달리 인식할수는 있어도 대체로 어떤 의미리해에 대답이 집중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룰수 있다.

《〈10kg쫘〉을 무게로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18명중 12명의 사람들이 《10kg의 안팎》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결과의 공통성은 다른 수값에 이 명사 《쫘》을 붙였을 때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것으로 표현되었다.《10L쫘》에 대하여 응답자 22명중 14명이 《10L의 안팎》으로, 5명이 《10L이상》으로, 2명이 《10L의 아래》로 반응했으며 1명이 레외적인것이였다.)

이것은 구체적인 수값을 주어 단어 《쫘》의 의미에 대한 표상을 보다 생동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일련의 부족점이 있다. 그것은 극히 작은 집단에 국한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해당 민족어를 사용하는 전체 언어사용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결론이라고 단언할수는 없다는것과 극히 적은 수의 응답자들이 사회전반을 결코 다 대표할수는 없다는것이다.

이 조사방법의 우단점을 고려하여 보통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고유어부사를 대략적인 크기를 표시하는 단어에 붙이여 알아본 자료를 아래에 소개한다.

* 주체106(2017)년 3~4월, 8~9월, 10~11월에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학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한 문답자료에 의거하였다. 집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이름을 쓰지 않게 하고 옆동무의 대답을 보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와 손전화 및 사전에 올라있는 단어들의 사전적의미를 보지 않도록 하였으며 독자적인 대답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물음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단어들의 사전적의미를 알려주지 않았다.

[물음1] 《열흘남짓이》를 며칠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사대상 20명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번호	1	2	3	4	5	6	7	8
대답날자	11~12	10~13	10~14	10~12	11~15	9~11	9~10	1~9
사람수	6	4	1	3	2	2	1	1
%	30	20	5	15	10	10	5	5

[분석평가]

번호 1부터 5까지가 《열흘남짓이》를 《열흘을 넘는 날자》로 인식하고있다.(11명 - 80%) 이것은 80%나 되는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부사 《남짓이》의 의미를 옳바로 알고있음을 증명해준다.

번호 6에 있는 2명이 《열흘남짓이》를 《열흘의 앞뒤(9~11일)》로 알고있다. 이것은 부사 《남짓이》의 어원*을 잘못 알고있는 표현이다.

이 부사 《남짓이》는 《남짓》, 《남직》, 《남짓하다》와 함께 자동사 《남다》에 어원을 두고 있다.

* 《남다》:

- ① 일정한 수나 량에서 얼마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다.
- ② 주어진 시간이나 거리가 앞으로 얼마간 더 그대로 있다.
- ③ 떠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 ④ 업적, 사적, 공적 등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
- ⑤ 일정한 문제나 일이 더 있다.
- ⑥ 상업, 재정 등에서 이익금이 생기다.

[《조선말대사전》 1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5(2006).]

[〈남직〉(말체)의 뜻 : 길어 남는것]

[〈남짓〉(수량을 나타내는 말뒤에 쓰이어) 일정한 기준보다 조금 더 되거나 일정한 한도에 차고 남음이 있는것]

[〈남짓이〉의 뜻 : 남짓하게]

만일 부사 《남짓이》가 동사 《남다》에 어원을 둔것임을 알고있다면 번호 7과 같은 대답은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 이 물음을 주기 전에 응답자들에게 단어의 어원과 사전적의미는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으므로 부사 《남짓이》의 의미를 쉬갈릴수 있는 조건은 있었다.

번호 8은 극히례외적인것인데 고유어부사 《남짓이》의 어원을 잘못 알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 이런것을 언어학에서는 어원망각이라고 한다.

[물음2]《열흘남짓이》에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보름(열닷새), 열엿새, 열이레, 열여드레》가 포함되는가?

조사를 하였던 주체106(2017)년 3~4월을 《가》로, 8~9월을 《나》로, 10~11월을 《다》로 하고 응답자의 수를 20명으로 국한하여 가, 나, 다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날자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보름	열엿새	열이레	열여드레
가	20	19	14	9	4	1	0	0
나	19	18	16	7	3	0	0	0
다	20	17	12	6	2	1	1	1
평균	19.6	18	14.3	7.6	3	0.6	0.3	0.3

단위는 사람수를 표시하는 《명》이다.

날자란에 있는 수자는 가령 《열하루》가 《열흘남짓이》에 들어있다는것을 인정하는 응답자의 인원수이다.

《나》줄에서 19은 지난해 8~9월에 조사한 자료에서 《열하루》가 《열흘남짓이》에 포함되어있음을 인정한 인원수이다.

19.6이라는 《평균》은 순전히 3개란의 수자를 산수적으로 평균한 값이다. 날자 《열아흐레》는 공연히 군더더기로 될것이므로 항목으로 넣지 않았다.

그 이상의 항목인 《스무날》은 물음인 《열흘남짓이》의 자리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넣지 않았다.

[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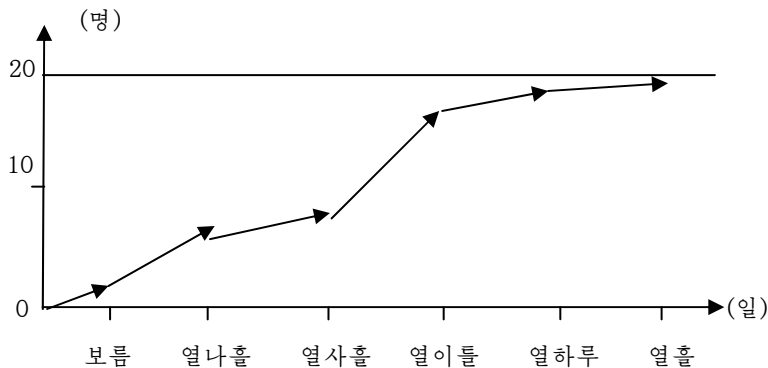
《열하루》가 《열흘남짓이》에 들어간다고 인정하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거의 모두가 참가하였다. 《열이틀》과 《열사흘》도 《열흘남짓이》에 포함된다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응답자의 대다수, 과반수가 찬성하였기때문이다. 물론 《열흘남짓이》에 《열하루》나 《열이틀》만이 포함된다는 식으로 명백한 한계를 긋기는 어렵다.

그러나 《열나흘》이 《열흘남짓이》에 확고히 들어간다고 보기도 힘들것 같다. 그것은 응답자의 절반도 못되는 인원만이 《열나흘》이 그속에 포함된다고 보았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열나흘을 아예 빼버리기도 난처하다.

《열흘남짓이》는 날자수가 《열흘》보다 더 있는것을 가리키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날자수가 많아질수록 긍정하는 인원수가 줄어들고있는것은 열흘보다 조금 더 많은 날이 《열흘남짓이》의 안에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특히 《보름(열닷새)》은 《열흘남짓이》에 거의나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도 된다.

《열엿새~열여드레》는 《열흘남짓이》의 안에 확고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평균인원수로 나온 수가 소수점아래의 소수로서 단 한사람에도 이르지 못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열흘》에 가까우면서도 얼마 되지 않은 날자수가 《열흘남짓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것을 도표로 표시한것이다.(평균인원수를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열흘》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날자들이 《열흘남짓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응답자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열흘남짓이》에는 《열흘》부터 《열나흘》까지는 속하고 《보름》과 그 이상의 날자수는 거의나 속하지 않는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또 《열흘남짓이》에 포함되는 날자수의 한계는 언제나 일정하게 고정된 수값으로 얻어지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물음3] 《보름가까이》에 며칠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의 의도는 《보름(15일간)》에 접근하며 다가드는 날자를 요구하는것이고 《보름

가까이》가 그 마감한계인 15일간을 넘지는 못한다는 한계선을 던져주는것으로 된다.(조사 기간과 응답자의 수는 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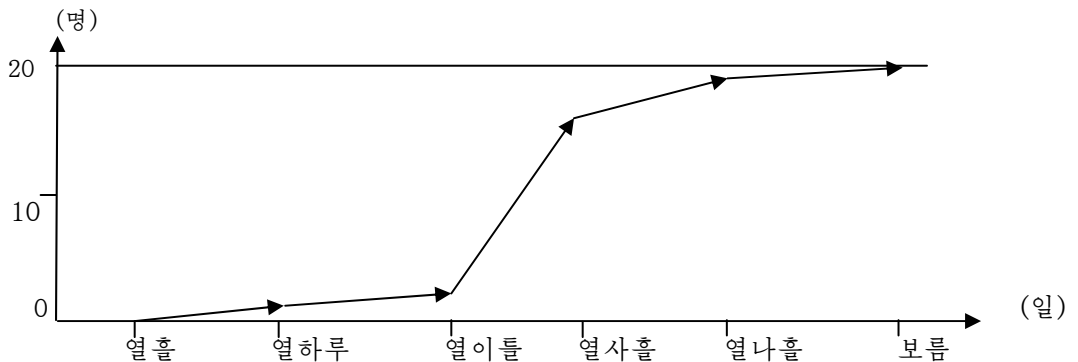
날자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보름
가	0	2	18	20	20
나	1	3	17	20	20
다	0	4	19	19	20
평균	0.3	3	18	19.6	20

[분석평가]

물음 1, 2에서는 단어 《보름》이 나올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열흘남짓이》에 《보름》과 《열엿새~열여드레》까지도 항목에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보름》이나 그 이상의 날자수에 해당하는 수값을 고려해볼 가치는 없다.

이제 단어 《보름가까이》와 관련된 새로운 물음이 제기되었는데 이미 앞에서 《열흘남짓이》와 관련된 응답이 나왔으므로 이제는 열흘부터 보름사이로 날자수의 한계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열하루》나 《열이틀》은 《열사흘》이나 《열나흘》에 비하여 《보름》으로부터 더 먼곳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응답자료는 거의나 비슷한 수값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보름가까이》라는 의미를 거의나 정확히 깨닫고있으며 특히 부사 《가까이》의 뜻과 어원을 옳바로 체득하고있음을 증시하는것으로 된다.(부사 《가까이》의 어원이 형용사 《가깝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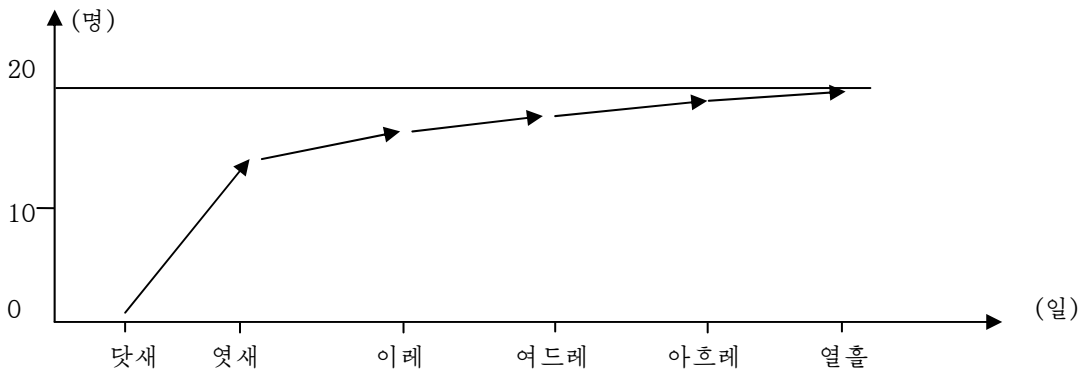


이처럼 《열사흘》과 《열나흘》은 《보름》에 그야말로 매우 가깝고 반대로 《열하루》와 《열이틀》은 《보름》과의 거리가 급격히 떨어진다.

[물음4]《열흘가까이》에 며칠이 들어갈수 있는가?

앞에서 두가지의 물음에 따르는 응답에 의하여 문답에 대한 표상이 비교적 섰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날자수가 《열흘》에 가까와질수록 더 많은 인원수가 거기로 쏠리게 된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날자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가	1	16	18	19	20
나	0	17	17	20	20
다	1	18	18	19	20
평균	0.6	17	17.6	19.3	20



[분석평가]

《열흘가까이》에는 《닷새》가 거의나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는 《열흘》이 넘는 날수를 짚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열흘남짓이》에서는 《아흐레~열하루》를 짚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부사 《가까이》의 의미를 모두가 옳게 이해한데 그 이유가 있다.

응답자들은 《엿새》부터 《아흐레》까지를 확고히 《열흘가까이》에 포함시키었다.

[물음5] 《열하루남짓이》에는 《열하루》에다가 《나절, 한나절, 반나절, 한낮, 반날, 반낮, 나절가뭇》을 덧붙인 기간이 포함될수 있는가?

흔히 언어생활에서 《한나절》과 《반나절》을 같은것으로 또는 서로 다른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지어 그 단어들의 의미를 뒤바꿔서 쓰는 경우들을 체험하곤 한다. 그러므로 이 물음을 제기한것은 하루가 못되는 《한나절》이나 《반나절》 또는 《반날》과 같은 단어들의 뜻을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이해하고있는가를 알아보자는데 그 의도가 있다.

명	나절가뭇	반날	나절	반나절	한나절	반낮	한낮
가	7	11	13	16	18	17	18
나	6	9	14	17	19	18	17
다	7	9	12	16	15	18	19
평균	6.6	9.6	13	16.3	17.3	17.6	18

여기서 레컨데 《반날》이라는 항목은 《열하루남짓이》에 열하루와 반날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줄여서 표현한것이다.

《반날》의 항목에서 《가》줄에서는 20명가운데서 11명이 인정하였다면 나머지 9명은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것이다.

* 나절 :

1. 하루낮의 절반.
2. 낮의 어느무렵이나 동안.

한나절 : 하루낮의 반.

반나절 : 한나절의 반쯤되는 동안. (하루낮의 1/4)

반낮 = 반날

반날 : 하루낮의 절반 곧 한나절.

나절가웃 : 하루낮의 3/4쯤 되는 동안.

한낮 :

1. 낮의 한가운데 곧 낮 12시를 앞뒤로 한때 = 정낮
2. 하루의 낮.

[《조선말대사전》 1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5(2006).]

[분석평가]

이 물음에서 《열하루남짓이》는 《열흘남짓이》에 비하여 말뿌리 《하루》가 덧붙여있다. 그리하여 《열흘남짓이》와는 다른 정황이 주어지게 되었다. 《열흘남짓이》에 《보름》이나 《스무날》은 확고히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아흐레》나 《열여드레》 등이 《스무날가까이》라는 뜻에 들어갈수 있기때문이다. 어쨌든 《열하루남짓이》는 많아서 《열나흘》까지일수는 있어도 《보름》이나 《스무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열하루남짓이》에는 《열이틀》은 들어갈수 없는것이다.

응답자들은 《열하루남짓이》의 한계를 열하루로부터 열이틀이 좀 못되는 사이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것은 《열하루남짓이》에 하루가 못되는 시간으로서 가령 《나절》, 《반나절》, 《나절가웃》, 《한나절》과 같은것을 넣을수 있다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답을 낸것을 보아도 짐작할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가령 《나절》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달리 리해하고있는것이다.

만일 하루의 절반을 넘어서면 그 기일은 곧 《열이틀가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외적인 대답을 내놓고는 거의 모두가 《반날》을 넘기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넓게 잡는다면 《반날》이 《열하루남짓이》에 빠듯이 들어간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나절가웃》은 사실 하루낮의 3/4정도이므로 사전적의미대로 하면 충분히 《반날》보다는 짧기때문에 《열하루남짓이》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자료에는 절반도 못되는 인원이 들어갔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체득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준다.

《나절》의 첫째 의미와 《한나절》은 의미가 같고 《나절》의 둘째 의미와 《한낮》의 첫째 의미가 비슷한데로부터 《반나절》과 《반날》, 《한나절》과 《반날》을 같은 뜻으로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

[물음6] 《10여일》이 《열흘남짓이》와 같은가 다른가?

이 물음을 줄 때 형태부 《一여》는 수 20, 30, ..., 100, 200 등에는 불지만 1~9에는 불지 않는다는것을 응답자들에게 밝혀주지 않았다. 고유어 《남짓이》, 《남짓하게》, 《남직》은 가

령 《열하루》, 《열이틀》, …, 《열엿새》, …, 《열아흐레》 등에 붙는다.

가)의 경우

총인원(명)	16	18	20	22	25	29	33	34	36
같다	10	9	8	12	10	20	16	17	17
다르다	6	9	12	10	15	9	17	17	19

* 나)와 다)의 경우도 이와 같이 일관성이 있는 결론을 내릴수 없는 자료가 나왔다. 그러므로 구태여 여기에 실지 않는다.

[분석평가]

《10여일》과 《열흘남짓이》가 같다고 보는것은 형태부 《-여》의 뜻이 《남다》임을 인식하였다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 뜻과 수값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것은 한편으로는 한자 《여일》의 어원과 용법을 모르는데도 있고 고유어 《남짓이》와 여값이 서로 다른것에도 기인된다고 볼수 있다.

그 뜻과 수값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것은 다른 편으로는 형태부의 결합가능성이 서로 다르다는것을 말해준다.

형태부 《-여》는 《20여일》, 《50여일》, 《100여일》에는 붙지만 수 1~9에는 붙지 않는다. 그리하여 《1여일, 4여일, 8여일》 같은 결합이 성립되지 않으며 《12여일, 26여일, 87여일》 등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사 《남짓이》는 《하루~아흐레》와 《열흘》, 《스무날》, 《쉰날》, 《백날》 등에도 결합될수 있다. 즉 이 고유어의 결합가능성은 한자형태부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크다.

이처럼 형태부결합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 두 단어는 서로 크게 차이난다고 말할수 있다.

결국 《10여일》과 《열흘남짓이》는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같은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것이다.

2. 분석평가내용의 응용과 관련되는 문제

언어생활에 쓰이는 단어는 언제나 구체적인 정황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인 정황속에 있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정밀하게 밝혀야 할 때도 있다.

레컨대 《우리 집가까이에 있는 우물》에서 대화자가 집과 우물사이의 거리를 가깝다고 하였으므로 멀지 않은 거리라고 짐작은 가겠지만 때로는 가령 《50m》가 될수도 있을것이고 그것보다 더 멀거나 가까울수도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사 《가까이》의 사전적의미를 그 단어가 쓰이는 수없이 많은 정황들을 하나하나 좇아다니면서 줄수도 없다.

사전적의미에는 그 어떤 빈 구석도 없고 그 어떤 결합도 없다. 그것은 사전적의미는 그 단어에 고착되어있고 그 의미를 사용자들이 제멋대로 바꿀수 없는 의미이기때문이다.

형용사 《길다》는 어떤 수값으로 고정된 길이가 아니라 형용사 《짧다》에 반대되는 길이를 다 가리키는것으로 된다.

뜻반대말의 본질은 수량이나 정도를 가리키는 형용사들만을 놓고본다면 임의로 척도를 설정하고 (《길다~짧다》의 척도를 3.7m나 아니면 39nm, …등등으로 한다고 하자.) 그것보다 정의값으로 커지는 수는 《길다》이고 부의값으로 커지는 수는 《짧다》에 속하게 된다.

문제로 되는것은 뜻반대말의 척도를 임의로 설정할수 있다는데 있다.

만일 이것이 뜻반대말의 의미를 정의하는데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길다》와 《짧다》의 의미는 수시로 변하는 척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으로 된다. 즉 이 두 단어가 뜻이 반대된다는 점에서는 절대적이고 영원히 고착되어있는 사전적의미를 가진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단어들이 언어생활에 쓰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번 그 단어들이 쓰이는 정황들에 따라 그 단어들의 의미가 구체화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부사 《남짓이》와 《가까이》의 의미는 사전에 올라있는 이 단어들의 의미가 언어생활의 구체적인 정황들에서 표현되는 의미로 된다.

《열흘》을 부사 《가까이》에 붙여서 《열흘가까이》로 하면 여기에는 《옛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가 들어간다고 볼수 있다. 날수가 많을수록 합성어의 개념속에 확고히 들어가는것으로 된다.

《닷새》로부터 《하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합성어의 개념속에 들어갈수 없게 된다.

《열흘남짓이》와 《보름가까이》의 의미를 동시에 상정시켰다고 하자. 이런 정황에서는 《열하루》와 《열이틀》은 《열흘남짓이》에, 《열사흘》과 《열나흘》은 《보름가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열흘남짓이》와 《스무날가까이》의 의미를 동시에 상정시켰다고 하자. 이런 정황에서는 《열하루~보름》은 《열흘남짓이》에, 《열옛새~열아흐레》는 《스무날가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언어생활에 쓰이는 경우에 그 의미는 일정한 수 값에 매여 고정불변한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적당한 폭에서 움직이는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생활속에서 단어가 매번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단어의 사전적의미는 언제나 자기의 고정된 의미를 보존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어교육과 단어의미론, 어휘론과 같은 책과 연구논문들에서는 언어생활의 각이한 정황에서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사전적의미가 쓰이는 과정에 주목을 돌리어 그 의미실현의 특징과 단어의 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사, 남짓, 인식정형